

Michael Lind, *The Next American Nation-The New Nationalism and the Fourth American Revolution*, The Free Press (1995); *Up from Conservatism -Why the Right is Wrong for America*, The Free Press(1996)

安 京 煥*

(1) Michael Lind는 새로 떠오르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논객이다. The New Yorker, The New Republic 등 일류 시사잡지의 편집실을 거쳐 현재 Harper's의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때 보수진영의 떠오르는 논객으로 촉망받았던 남부 출신의 저널리스트였다. 약관 35세의 청년의 몸으로 Clinton대통령의 대담 파트너가 되는 등 어쩌면 '이미 떠오른 별'이라고 부르는 게 더욱 격에 맞을는지 모른다.

Clinton의 선거와 국정 전략을 여당과 야당, 모두로부터 독립된 '개인적 대통령'(personal presidency)제를 추구하는 "제3의 길"로 명명한 그는 미국의 정치체제를 남아메리카형 데마고그 대통령에다 유럽형 의회가 결합된 형태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정치현상을 대중매체의 분화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재기를 보인다. 차분하고도 이성적인 분석적 토론으로 지적인 청중을 겨냥하는 C-SPAN이 이성적인 의회라면, 폭발적인 감성의 대중을 겨냥한 속보와 자극적인 보도를 장기로 삼는 CNN을 인기와 여론조사를 유일한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대통령에 비유한다.¹⁾

그의 저술은 정치, 역사, 문학, 인류학, 법학 등 다방면에 걸쳐 번뜩이는 기지가 돋보인다. 1998년 10월 한국아메리카학회의 연차 학술대회의 기조 발제자로 초청되어 온 재기 발랄한 청년의 모습에서 논제만 있을 뿐 '전공'이라는 장벽이 없는 미국 지성계의 果實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학회에서 제시한 글에서 Lind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 사회의 본질과 발전을 논의하는 2대 학파(School)의 입장을 공히 공박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편다.²⁾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教授

1) Michael Lind, Introduction, *The New Republic Guide to the Issues -The '96 Campaign* (1996) A New Republic Book, Basic Books ix-xxi.

미국이 유럽-아메리카인 중심의 단일문화 (mono-cultural) 사회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문화'(multi-cultural society) 사회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제1의 학파의 주장이다.³⁾ 이에 대해 제2의 학파는 문화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립과 분리를 미국 사회의 본질로 파악한다. 이들 양대 학파에 공통된 주장은 미국이 '요세화' (Balkanization)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Lind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그에 의하면 '인종', '종교', '경제적' 계층간의 갈등이 미국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요소가 '지역'과 결합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정치는 한 지역의 소수자가 타 지역의 엘리트집단과 연합을 이루어 온 양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착안하여 분석한 미국의 정치사는 북부당(the Northern Party)과 남부당(the Southern Party)의 양당정치의 역사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George Washington, Alexander Hamilton을 원조로 하는 북부당은 Federalists, National Republicans, Whigs, Republicans의 역사를 거쳐 1960년대 민권혁명의 결과 오늘날 민주당(Democratic Party)으로 승계 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을 주도한 인종은 New England Yankees, 5대호, 북부평원과 태평양 북서지방(Pacific Northwest)의 Yankee정착자의 후예들이었으며, 19세기 이후에는 해방된 노예와 독일계 이민, 그리고 20세기 이후에는 유대계 미국인들이 가세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조적으로 Thomas Jefferson을 원조로 하는 남부당은 Republicans, Democratic Republicans, Democrats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의 Republican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부 해안에 정착한 백인, 북부의 카톨릭(특히 Irish-Catholic)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⁴⁾

"내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공식에 따라 각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지배층은 타 지역의 노동자 계급과 연합전선을 편다. 연방의회의 상, 하 양원의 구성과 정치기류의 변화에 따라 이들 양대 '정당'간의 주도권 다툼이 미합중국의 외교, 국방, 경제, 통상 정책을 결정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주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Lind가 최초로 제시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논의의 폭을 확대시킨 공로는 인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원적인 가치가 공존하는 연방국가인 미국사회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Lind가 '교차적 지역성'이라는 미국 정

2) America's Permanent Parties: The Continuities in U. S. Politics, 1776-2000.

3) 이들이 말하는 '문화'의 개념은 주로 인종과 종교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 본다.

4) 초기 유럽인의 미국 이민사의 세부적 내용과 출신 및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른 '문화'를 형성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는 D. W. Meinig, *The Shaping of America: A Geographical Perspective on 500 Years of History* Vol. 1(1986), Vol. 2 (1993) Yale University Press 참조.

치의 본질을 간파해야만 사안에 따라 효과적인 대미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 글을 주목해야 하는 보다 큰 이유는 미국정치사의 분석이나 실리적 효용보다는 21세기는 이러한 종래의 양당 구도가 바뀔 것이라는 결론적 예견 때문이다. 백인과 타 인종간의 혼인이 급증하는 현상을 감안하면 종래의 흑, 백의 인종구도 대신 "beige" 대 흑이라는 새로운 인종구도가 Sunbelt 지역의 인구의 불균형적 성장과 함께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판도를 이룰 것이라는 과감한 예측은 주목의 가치가 크다.

(2) 1996년의 저서, 새로운 미국(The Next American Nation)은 Lind를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시킨 저술이다. Harvard Law School의 "American Democracy" class를 위시한 미국의 각급 대학의 중요한 교재의 하나로 채택되고 있는 이 저술의 주된 주제이자 전편을 관류하는 화두는 "과연 미국은 '민족국가'(nation)인가" 라는 의문이다.

미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근래의 정설은 민족국가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주로 정치적 좌파와 결합하여 미국을 문화적 다원주의 (multi-culturalist) 국가로 성격 규정하는 입장에서는 다인종 특히 5대 인종의(흑, 백, 히스패닉, 아시아-태평양, 인디언/Inuit)이 주도하는 "작은 U.N."으로 이해한다. 한편 정치적 우익에 뿌리를 둔 "민주적 이상국가"(democratic universalist) 학파는 미국의 유일, 특이성을 강조한다. 즉 미국은 인류사에 유례없는 정치적 실험이 성공한 특이한 국가임을 신봉한다. 이들에 의하면 미국은 민족국가(nation state)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이상과 철학 위에 선 이상국가(idea state)이며, 따라서 이른바 '미국민'이란 존재하지 않고 미국적 이상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Lind는 이러한 양대 주장을 모두 배격하며 제3의 주장을 편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보아도 미국은 문화적 다원주의 국가도, 민족을 초월한 이상국가도 아니었고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민족국가(liberal and democratic nation-state)로 출발하여 자유민주주의 민족국가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란 단순한 사람의 집적체가 아니라 (공통의 언어, 행위양식(folkways) 그리고 대중문화(vernacular culture)에 의해 특정되는) 구체적이고도 역사적인 공동체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미국의 역사를 재해석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해석의 체계를 정립한 자신의 저서를 미국이 자유주의 민족국가임을 선언하는 최초의 저술이라고 자부한다. (p. 15)

이러한 사관에 입각하여 Lind가 해석하는 미국사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상을 평화적으로 실현한, 이상적 점진적 역사가 아니라 투쟁적, 소요적 역사이다. 전면적

인 권력투쟁을 통해 독립혁명, 남북전쟁, 민권혁명, 세 차례의 혁명을 겪었으며 매번의 혁명에는 극심한 폭력이 수반되었다. 연속성을 가장해 온 미국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세 차례의 견고한 ‘공화국’(republic)에 의해 단절, 분리된 역사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헌법제정에서 남북전쟁에 이르는 시기(1789-1861)의 최초의 공화국은 Anglo-American의 공화국이며, 남북전쟁과 ‘재통합’(Reconstruction)으로 탄생하여 민권혁명에 의해 붕괴된 제2공화국(1875-1957)은 Euro-American의 공화국, 그리고 1972년경부터 건설된 제3공화국은 5대 인종이 나름대로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다문화 (multi-cultural American) 공화국으로 파악한다. 이들 각 공화국은 인종, 문화, 시민권 등 민족국가의 요소로 견고한 무장을 유지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Lind는 이제 미국은 제3공화국에서 제4공화국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종래의 인종적 분류가 무너져가면서 “미국인”이라는 단일한 인종이 “미국문화”라는 공통의 문화를 창조해 나간다는, 다소 성급한 결론은 적어도 ‘당위’의 관점에서는 수긍할 수 있다. (제8장)

1960년대를 “부자의 혁명기”(Revolution of the Rich)로 명명하고, 좌익사상에 뿌리를 둔 이 시기의 민권혁명과 우익 경도의 경제정책 사이의 조화를 발견하는 관찰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혁명’, ‘공화국’과 같은 언어를 보다 치열하고 강도 높은 상황과 연결시키는 습성에 젖은 일부 사회과학도에게는 Lind의 ‘혁명’은 함량미달일지 모른다. 엄정한 학문적 기준으로 보면 저널리시틱한 방법에 입각하여 쓴 여러 가지 논리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저술은 미국사의 새로운 논쟁과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 점에서 이미 상당한 평가를 얻고 있다.

(3) 1996년의 후속 저술, 보수주의를 넘어서(Up From Conservatism) 또한 Lind의 재기가 유감없이 튀는 저술이다. “미국의 보수주의는 죽었다.” 라는 자극의 정도를 넘어 다분히 선동의 냄새마저 진하게 풍기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 저술은 의외로 분석적이다. 정치현상을 정치사상과 헌법사상과 연결짓는 저널리시틱한 솜씨는 탁월하다. 전 5장 (보수주의자의) “재정비와 혁명”(제1장) “중도의 실패”(제2장), “삼각거래” (제3장), “우익은 무적” (제4장) “소란스런 남부”(제5장)은 주로 1980년대 이후의 미국 정치 현상을 중심으로 미국을 분해한다. Lind의 분석에 의하면 공화당 우파를 중심세력으로 하는 미국의 보수주의는 미국정치를 보수적 대중과 진보적 엘리트 사이의 대립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특색이 있으며 Pat Robertson등 범기독교연합(Christian Coalition)의 종교지도자의 역할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후반 5장은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제6장, “문화전쟁과 새로운 계급의 신화”에서는 60년대 이후의 대중문화에 교묘하게 파고든 “유대-크리스천”의 윤리를 추출해 낸다. 제7장 “보수주의의 3대 의혹”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세금제도와 교육제도의 운영, 그리고 ‘혼외출생자’(illegitimacy)라는 개념의 악용을

통해 미국을 '기만'해 왔음을 고발한다. 제8장 “신 사회적 다원주의—인종주의의 재현”에서는 민권운동이 성취한 인종평등주의의 시대에 교묘하게 변장한 모습으로 재현되는 인종주의를 비판한다.

법학도의 관점에서는 제9장, “주연합 헌정론”(Confederate Theory of Constitution)이 지적 흥미를 돋군다. 오랜 시일에 걸쳐 미국헌법의 수호자로 자처해온 보수주의의 사상적 뿌리는 “대중민주주의”(popular democracy)의 환상 아래 무장반란권을 신봉하고 각종 정치적 책략마저 주저 않는 “주연합 헌정론”이라고 Lind는 주장한다. Jefferson-Jackson의 빛나는 전통에 기대어 남부와 서부에 뿌리를 내린 州權理論 (States' rights theory)의 정체는 연방주의자(Hamilton주의자)와 반 연방주의자(Jefferson주의자) 모두에게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보수주의’의 이념이라는 요지의 주장이다. 미국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 평면적인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가리키는 대목이다.

주정부야말로 “민주주의의 실험실” (laboratory of democracy)이라는 이들 州權理論의 신봉자로 Rehnquist, O'Connor, Scalia, Thomas의 보수주의자 판사를 드는 “중도의 용해”로 부제한 제10장과 에필로그에서 보수주의의 극복이야말로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이념적 과제라는 주장으로 Lind는 제2의 단행본 저술을 마감한다.

(4)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조의 각종 매체에 왕성한 기고활동을 하고 있는 Lind는 자신은 결코 무슨 ‘주의자’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자신의 관심 분야가 다양한 만큼 매체의 성격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논제가 무엇인가에 자신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왜 사상적 뿌리를 자주 바꾸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자신은 변한 게 없는데도 시대의 진자의 운동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다를 뿐이라는 ‘지동설’을 펴는 당당한 오만함을 보인다. 약관 30대 중반의 저널리스트 Michael Lind,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시대인의 주목을 끌고 갈 것인지, 아직으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국을 약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저술은 매우 재미가 있다는 점이다.